

의정소식

구민 복리 증진과 복구 발전을 위해 힘 없이 발로 뛰며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제 3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CONTENTS

ULSAN BUK-GU COUNCIL NEWSLETTER



대동큰리공원 물놀이장

- 04 발간사
- 05 제8대 후반기 의원현황 및 정수
- 06 복구의회 연혁 및 조직
- 07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안건처리 현황
- 08 주요의정활동
제224회 임시회
제225회 임시회
제22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
- 15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 24 현장 속으로
- 31 결의안, 건의안, 구정질문, 서면질문,
5분 자유발언



표지설명 | **생태공원연발**
(송채운, 북구 관광사진전 수상작)

발행일 | 2025년 상반기, 제34호
발행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편집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과장
발행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과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전화 | 052)241-8971~8976
홈페이지 | <http://council.bukgu.ulsan.kr>



사랑하는 22만 울산 복구 구민 여러분!
복구의회 의장 김상태입니다.

2025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제8대 복구의회의 의정활동을 담은 '의정 소식 제34호'를 구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소식지는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담아 내 구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입니다.

본 호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복구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달려온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우리 복구의회는 22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복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생 관련 조례 정비와 정책 제안을 통해 구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제8대 복구의회는 남은 임기 1년에도 힘차게 달릴 것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생산적인 논의를 펼칠 것입니다.

구민과의 소통으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복지 확충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의장 **김상태**

▣ 제8대 [후반기] 북구의회 의원현황



의 장

성 명 김상태
연락처 010-3854-1103
선거구 농소 2·3동



부의장

성 명 조문경
연락처 010-5232-4625
선거구 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장

성 명 박재완
연락처 010-9697-7139
선거구 농소1·송정동



행정자치위원장

성 명 손옥선
연락처 010-7760-6745
선거구 강동·효문·양정·염포동



복지건설위원장

성 명 박정환
연락처 010-9359-8572
선거구 농소 2·3동



의 원

성 명 김정희
연락처 010-3469-1522
선거구 농소1·송정동



의 원

성 명 이선경
연락처 010-8545-0266
선거구 농소 2·3동



의 원

성 명 강진희
연락처 010-8610-4748
선거구 강동·효문·양정·염포동



의 원

성 명 임채오
연락처 010-4844-5405
선거구 강동·효문·양정·염포동

▣ 의원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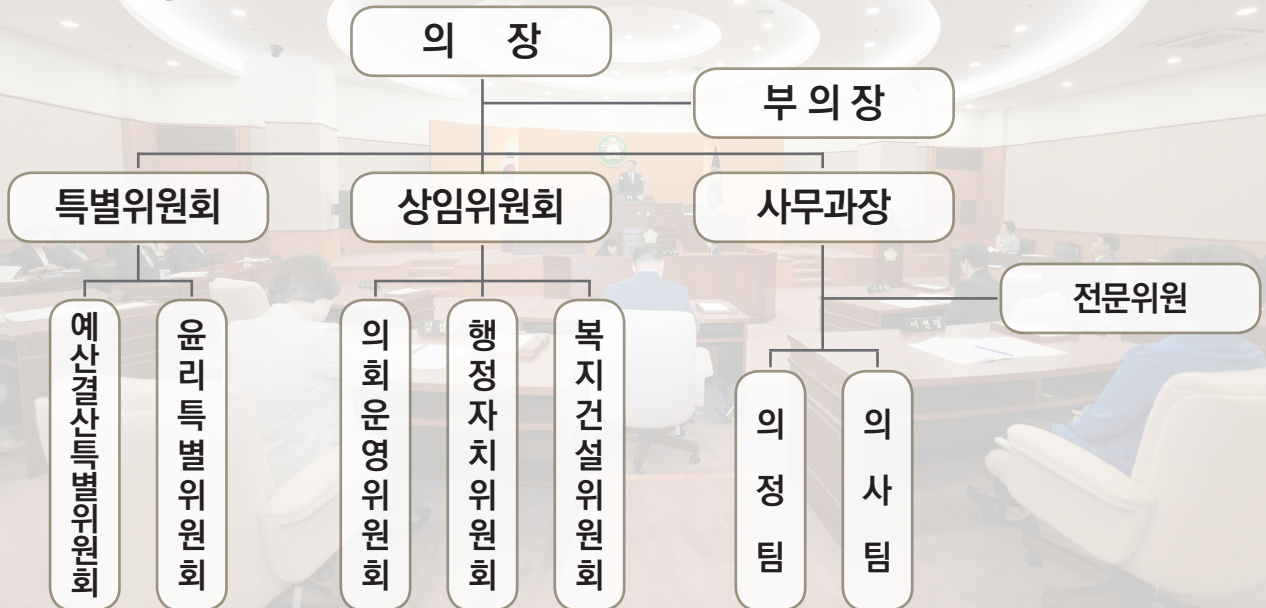
계	가선거구 (농소1·송정동)	나선거구 (농소2·농소3동)	다선거구 (강동·효문·양정·염포동)	비례대표
9	2	3	3	1

□ 울산광역시 승격 및 북구의회 설치



- 1997. 7. 15 초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1998. 3. 1 동구 염포동 선거구 복구 편입(8명)
-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 7. 7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0. 2. 21 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00. 6. 8 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 7. 9 제3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 7. 3 제4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0. 7. 1 제5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0. 7. 1. ~ 2014. 6. 30.
-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4. 7. 1 제6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7명)
- 임기 : 2014. 7. 1. ~ 2018. 6. 30.
-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8. 7. 1 제7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8명)
- 임기 : 2018. 7. 1. ~ 2022. 6. 30.
- 2020. 1. 15 농소1·강동·송정동의원 사직(7명)
- 2020. 4. 15 농소1·강동·송정동의원 보궐선거(8명)
-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22. 7. 1 제8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9명)
- 임기 : 2022. 7. 1. ~ 2026. 6. 30.

□ 의회 조직





회기운영 현황(2025. 2. 14. ~ 6. 25.)						
구분	계		임시회		정례회	
	회수	일수	회수	일수	회수	일수
2025년 상반기	3	46	2	30	1	16

안건처리 현황											
회수	일수	계	예산안	결산	조례안	동의안 (승인)	결의안 (건의안)	보고	질문	5분 자유발언	기타
제224회 (2025.02.14.~02.28.)	15	14	0	0	7	1	1	1	2	5	4
제225회 (2025.04.16.~04.30.)	15	26	2	0	14	3	1	1	3	6	4
제226회 (2025.06.10.~06.25.)	16	19	0	2	11	2	0	0	1	5	4
합계	46	59	2	2	32	6	2	2	6	16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24회 || 임시회 2025. 2. 14. ~ 2. 28. (15일간)

울산북구의회(의장 김상태)가 올해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으로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진행한 올해 첫 회기인 제22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북구의회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 의안 9건을 처리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인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조문경 의원 발의)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이상 박정환 의원 발의)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북구청에서 접수한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본회의 말미에는 박천동 구청장을 상대로 두 번의 구정질문과 답변 순서가 이어졌다.

박재완 의원이 ‘북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통·복지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하여’를 주제로, 강진희 의원이 ‘장애인 거주시설 상습 학대 사건에 대한 북구청의 대책에 관하여’를 주제로 구정질문을 펼치고 박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김상태 의장은 “15일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의원 및 북구청 직원들의 수고가 많았다”면서 “북구 발전을 위해 계속 온 힘을 다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25회 || 임시회 2025. 4. 16. ~ 4. 30. (15일간)

울산북구의회는 4월 30일 본회의장에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북구가 제출한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회기를 마무리했다.

북구는 앞서 당초 예산 4천976억7천689만원 대비 241억9천668만원 증액한 5천218억7천357만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북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9일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건, 30억2천3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건, 30억2천30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 가결했다.

이는 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를 통한 가림시설 설치사업 관련 예산으로 전액 시비 보조사업인데 시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가 선제적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재완 의원 대표 발의)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강진희 의원 대표 발의)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손옥선 의원 발의)이 상임위 심사안대로 최종 의결됐다.

또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조문경 의원 대표 발의)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 발의)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환 의원 발의)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조문경 의원 대표 발의)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정환 의원 대표 발의)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채오 의원 대표 발의)도 상임위 심사안 그대로 가결됐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26회 || 정례회 2025. 6. 10. ~ 6. 25. (16일간)

울산북구의회가 6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며 16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북구의회는 앞서 지난 10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각종 의안을 심사해 2차 본회의에 상정, 이날 종합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선경 의원 대표 발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박재완 의원 대표 발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안(박정환 의원 대표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상 박정환 의원 발의) 등 의원 발의 조례안과 북구청 상정 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가결했다.

김상태 의장은 “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한 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준 박천동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하반기에도 오직 구민들만 생각하며 지역 발전에 함께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이날 본회의 직후 '청렴한 지방의회 만들기'를 주제로 청렴 퍼포먼스를 펼쳤다.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를 참관한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북구지회 회원들과 함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부터! 지금부터! 끝까지' 등 청렴을 강조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청렴 구호를 외치며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지난 상반기 제224회부터 226회까지의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모두 6차례의 회의를 열어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장 박재완



부위원장 임채오



위원 박정환



위원 손옥선

“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손옥선)는 지난 상반기 제224회부터 226회까지의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모두 20차례의 회의를 열어 4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활동으로 유포봉수대와 유포석보,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과 농소2동 운동장(중산스포츠타운)조성현장을 찾아 현안을 브리핑 받았다.



위원장 손옥선



부위원장 이선경



위원 박재완



위원 강진희

“ 복지건설위원회 ”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정환)는 지난 상반기 제224회부터 226회까지의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모두 20차례의 회의를 열어 4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활동으로 송정박상진호수공원과 재활용 홍보관, 명촌 배수펌프장을 찾아 도로와 주차장, 보행길 등을 둘러봤다.



위원장 박정환



부위원장 조문경



위원 김정희



위원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상반기 제224회부터 226회까지의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모두 4차례의 회의를 열어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제224회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 급속한 고령화로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병원 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 울산광역시 북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 원안가결**
 -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 대응을 위해 예방교육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 원안가결**
 - *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 * 행정분야 옴부즈만 위원의 해촉('24. 11.)에 따라 공개모집 및 면접을 통해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북구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지방세기본법」 개정('24. 1. 1.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상향됨에 따라 일반 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가산세 적용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 여성행복맞춤센터 개관에 따라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하고,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그 밖에 현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년~2026년)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의견없음**
 - *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수립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2024년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련 법에 따라 그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제225회 임시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원안가결**
 - * 「지방자치법」 개정(2023. 9. 22.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 각종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 ‘저장강박’은 개인의 문제로 시작해 점차 이웃의 생활환경에까지 피해를 주는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최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장애인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지원 내용을 보완해 북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 *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었음.
 - * 이에 따라 구민의 안전과 인권 증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원안가결**
 - * 현수막은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 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울산광역시 북구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건전한 산림레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통장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통·반장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근거 및 서비스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자원봉사자 지원과 포상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의보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이 조례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25. 6. 30.)예정인 재위탁 추진을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전문 상담과 프로그램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 이에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출산 지원대상 기준을 울산시 및 타 구·군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의 지원내용을 신설하며,
* 행정안전부예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현행 조문의 미비점 보완 하고자 함.
-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다함께돌봄센터 3, 4호점 위탁기간 만료('25. 9. 30.)예정인 재위탁 추진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전문적·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이에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옥외광고물 가로등 현수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구에서 직접 신고·접수 및 관리하는 가로등 현수기와 관련하여 적기 게시 및 철거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가로등 현수기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관리능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 이에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 의견없음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안건처리 현황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돌봄 기반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돌봄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업무 통솔범위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업무 통솔범위를 조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인구정책위원회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 * 당연직 위원 구성을 관련 업무 부서장 중심으로 조정하여 인구정책위원회의 실질적 기능과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인구 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 원안가결

- * 「울산광역시 복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 * 2명의 옴부즈만 위원의 임기만료(‘25. 7. 9.) 예정에 따라 공개모집 및 면접을 통해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복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울산광역시 복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신청 시 필요 서류를 현실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육성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양에 유입되거나 유입될 우려가 있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수거·처리 등의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정비가 필요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 특히, 주민자치회 위원 및 회장의 연임사항 정비, 주민참여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구민의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재정지원 및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
-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 우리나라는 UN이 발표한 '물 스트레스 국가'임에도 불구하고1인당 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 이에 따라 물 절약 추진계획 수립 및 절수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물 절약을 촉진하고 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2025년 지방자체단체 합동평가 지표> 및 법제처 의견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명과 조문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국공립 강동하나어린이집 수탁체의 위탁계약 해지 의사에 따라 재위탁이 필요하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여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함
 - *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발의일시 : 2025. 2. 3.

발의자 : 조문경 의원(대표발의) 외 8명

제안이유 : 급속한 고령화로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병원 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원안가결 - 2025. 2. 28.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발의일시 : 2025. 2. 3.

발의자 : 박정환 의원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원안가결 - 2025. 2. 28.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발의일시 : 2025. 2. 3.

발의자 : 박정환 의원(대표발의) 외 8인

제안이유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 대응을 위해 예방교육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 원안가결 - 2025. 2. 28.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발의일시 : 2025. 3. 31.

발의자 : 박재완 의원(대표발의) 외 8명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023. 9. 22.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원안가결 - 2025. 4. 30.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발의일시 : 2025. 3. 31.

발의자 : 강진희 의원(대표발의) 외 8명

제안이유 : 각종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원안가결 - 2025. 4. 30. 제2차 본회의

“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



● 울산광역시 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일시 : 2025. 3. 31.

발의자 : 손옥선 의원

제안이유 :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수정가결 - 2025. 4. 30.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발의일시 : 2025. 4. 4.

발의자 : 조문경 의원(대표발의) 외 8명

제안이유 : ‘저장강박’은 개인의 문제로 시작해 점차 이웃의 생활환경에까지 피해를 주는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음. 이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원안가결 - 2025. 4. 30.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일시 : 2025. 4. 4.

발의자 : 김정희 의원(대표발의) 외 4명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 원안가결 - 2025. 4. 30.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일시 : 2025. 4. 4.

발의자 : 박정환 의원

제안이유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지원 내용을 보완해 북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수행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원안가결 - 2025. 4. 30.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일시 : 2025. 4. 4.

발의자 : 조문경 의원(대표발의) 외 4명

제안이유 :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었음. 이에 따라 구민의 안전과 인권 증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원안가결 - 2025. 4. 30. 제2차 본회의

“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



●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발의일시 : 2025. 4. 4.

발의자 : 박정환 의원(대표발의) 외 8명

제안이유 : 현수막은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사용 후 폐기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체계적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원안가결 - 2025. 4. 30.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일시 : 2025. 4. 4.

발의자 : 임재오 의원(대표발의) 외 8명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건전한 산림레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원안가결 - 2025. 4. 30.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일시 : 2025. 5. 30.

발의자 : 이선경 의원(대표발의) 외 4명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원안가결 - 2025. 6. 25.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발의일시 : 2025. 5. 30.

발의자 : 박재완 의원(대표발의) 외 8명

제안이유 :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양에 유입되거나 유입될 우려가 있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수거·처리 등의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원안가결 - 2025. 6. 25.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일시 : 2025. 5. 30.

발의자 : 박정환 의원

제안이유 : 구민의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재정지원 및 지역기후대응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

▶ 원안가결 - 2025. 6. 25. 제2차 본회의

“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



- 울산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조례안

발의일시 : 2025. 5. 30.

발의자 : 박정환 의원(대표발의) 외 4명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UN이 발표한 '물 스트레스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물 절약 추진계획 수립 및 절수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물 절약을 촉진하고 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 원안가결 - 2025. 6. 25. 제2차 본회의



-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발의일시 : 2025. 5. 30.

발의자 : 박정환 의원

제안이유 :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질병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 원안가결 - 2025. 6. 25. 제2차 본회의

설맞이 아동·노인복지시설 위문



울산북구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북구의 복지시설들을 위문했다.

북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1월 21일 ‘설맞이 복지시설 방문 활동’으로 천곡동의 아동복지시설 ‘겨자씨 공동생활가정’을 찾아 육류와 라면, 세제 등을 전달했다.

이어 호계동에 위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조은아침북구 재활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세제와 휴지 등의 위문품을 전했다.

김상태 의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각 시설장으로부터 시설 개요와 입소자, 종사자 현황 및 시설 운영 애로사항을 들은 후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상태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북구지역 주민들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 복지시설 위문 활동에 나섰다”면서 “모든 주민이 소외받지 않고 따뜻하게 설을 보내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주민 불편’ 市에 전달



울산북구의회가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따른 북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향후 개선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울산시를 방문했다.

김상태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들은 2월 20일 울산시 교통국장실을 방문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북구 주민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어 시의회 다목적회의실로 이동,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북구지역 시의원과 함께 울산시 버스택시과장 등 버스 노선 개편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노선 개편과 관련한

주민 건의안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21일 울산시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후 노선이 폐지 또는 통합됨에 따라 발생한 민원을 주민의 대표로서 전하고 개선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노선 개편 후 북구 교통행정과를 통해 북구 주민의 민원이 시에 전달됐지만, 구의원이 개별 접수한 민원도 다수여서 이를 시에 전하고 개선 계획을 듣기 위해 방문을 추진했다.

전달한 민원은 총 33건으로 △매곡·이화·강동·양정·염포지역 등의 노선 통·폐합으로 인한 중구·남구 도심 방향 노선 축소·폐지 △장거리 노선 단축에 따른 지나친 환승 △버스앱 운행 시각과 실제 시각 차이 △디지털 약자의 버스 이용·환승 어려움 등이 주요 민원 사항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유포봉수대·석보 현장방문

울산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224회 임시회 현장 방문활동'으로 2월 27일 당사동과 정자동에 위치한 시 지정 기념물인 우가산 유포봉수대와 유포석보 일원 현장을 방문했다.

유포봉수대는 조선 전기 동해안에 조성된 봉수대로 이곳은 동구 남쪽 지역에서 봉수를 받아 경주지역으로 전하는 임무를 맡았던 곳이다.

봉수대 복원 및 정비를 위해 2003년부터 학술 용역과 토지 매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3억4천300만원의 시비와 구비를 투입, 당사동 230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했다.

북구는 올해 시비와 구비 총 5천만원을 들여 수목 제거와 시굴 조사를 통해 봉수대의 역사 경관 복원을 추진한다.

유포석보는 조선 초기 동해안 방어를 위해 쌓은 소규모의 성으로 주차장 조성 등 정비사업이 추진됐으며 올해는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매입을 추진 중이다.

손옥선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들은 문화유산들을 찾아 문화유산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 받고, 향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기념물들이 북구 대표 명소로 손색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상진호수공원 현장방문

울산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2월 27일 '제224회 임시회 현장방문활동'으로 지난해 3월 산사태로 인해 산책로를 전면 폐쇄하고 다양한 공간을 조성, 올해 다시 개방한 송정 박상진호수공원을 찾았다.

이곳은 광복 활동을 하다 순국한 북구의 역사적 인물인 고헌 박상진 의사의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공원이다.

도심 인근 수변 산책로로 인기를 끌다가 지난해 산사태로 전면 폐쇄 후 재정비 사업을 통해 재개방됐고, 올해는 달영 저수지 산책로 조명 설치와 야외공연장 잔디심기가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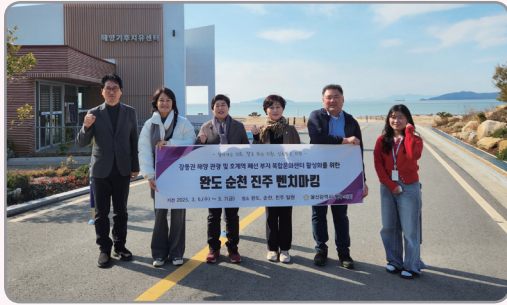
박정환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들은 도시생태휴식공간을 위해 진행한 산책로 보수 현장과 생태숲 및 황토맨발길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산사태 방지를 위한 낙석방지망 및 산사태 방지책도 직접 확인했다.

새로 교체한 목재 난간과 공중화장실, 진입부 LED 간판 등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위원들은 장기간 공사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었지만,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다행이라면서, 올해 추가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북구 담당 부서에 요청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자원활용 우수사례 견학



울산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강동권 관광 개발과 동해 남부선 폐선부지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남 완도·순천과 경남 진주 지역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에 나섰다.

손옥선 위원장을 비롯해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의원은 3월 5일부터 7일까지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의 효과적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복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추진했다.

전남 완도 해양기후치유센터와 순천 어울림센터, 청춘창고, 철도마을박물관에 이어 경남 진주 철도문화공원과 남강유등

전시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는 바닷물과 해조류, 갯벌 등 해양 자원을 활용한 전문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순천에서는 배수펌프장 유수지를 활용한 문화·체육 시설을, 진주에서는 폐선로와 폐역사의 문화관광 자원화 사례를 각각 확인하며 복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은 “바다와 유수지, 폐철도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원 활용 모범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러한 혁신적 접근법을 복구에 맞게 도입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자원순환 성공사례 견학



울산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에너지 활용과 자원순환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라남도 해남군 일원을 방문했다.

3월 5일부터 7일까지 이어진 이번 현장 방문에는 박정환 위원장을 비롯해 조문경, 임채오 의원 등 복지건설위원회 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해남군의 자원순환복합센터와 생활자원처리시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자원순환복합센터는 지난해 5월 개관한 총 1천274㎡ 규모의 3층 건물로, 재활용품 교환,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땅끝 희망이’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재활용품으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시설 이용에 활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자원 선순환 시스템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생활자원처리시설은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을 운영 중이다. 해남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자원 재활용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현장 방문에 앞서 위원회는 해남군의회를 방문해 지역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박정환 위원장은 “해남군의 혁신적인 자원순환 시스템을 보고 복구의 자원순환 정책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벤치마킹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자원순환·에너지 정책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동천자전거도로 일원 환경정화 봉사활동

울산북구의회가 1분기 정기 자원봉사활동으로 3월 20일 농소1동 소재 동천 자전거도로 일원에 대한 환경 정화에 나섰다.

북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20여 명이 참가해 자전거도로 근처 및 농기계 통로에 버려진 크고 작은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한 도로 내 노후 편의시설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봉사하고 숭선수범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북구의회가 매 분기 진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하나다.

김상태 의장은 “봄을 맞아 도로나 자전거로 북구의 멋진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면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주군 산불피해복구 성금 적십자에 전달

울산북구의회가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주군지역 주민을 위해 적십자에 성금을 전했다.

북구의회는 3월 22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울산시 지사에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2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울주군 지역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한 것이다.

김상태 의장은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작으나마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의병역사공원 등 현장방문



울산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4월 28일 제225회 임시회 현장방문활동으로 임진왜란 당시 울산 의병 활동지인 기박 산성 일원에 조성된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을 방문, 광장과 의병이야기길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 중산동 산126 일원을 찾아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최근 공사를 시작한 중산스포츠타운(농소2동운동장) 조성 현장을 찾아 현황을 브리핑받고 차질 없는 공사를 당부했다.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은 “의병 역사공원은 전시실 콘텐츠 확충과 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뒤 “중산스포츠타운의 경우 지하 암반과 자재비 상승 등으로 규모가 축소됐지만 주민 만족을 최우선 고려해 잘 조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재활용홍보관·배수장 방문



울산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4월 28일 제225회 임시회 현장방문활동으로 연암동 두부곡 19 일원에 위치한 '북구 재활용홍보관'을 방문해 2001년 설치 후 24년이 지나면서 낡아, 활용도가 떨어진 이곳의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명촌동 433-24 일원에 위치한 명촌배수장을 방문해 이곳의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곳에서는 효문배수장과 더불어 총사업비 8천210만원을 들여 이달부터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공사를 시작, 6월 준공 예정이다.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은 “재활용홍보관은 낡은 시설로 인해 이용률이 떨어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배수 펌프장의 경우 중앙제어시스템을 구축하면 하천 수위에 따라 배수장을 자동 제어 가능해 호우·태풍에 신속 대응할 수 있기에 차질 없이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렴 정책 및 관광 활성화 관련 벤치마킹

울산북구의회 김상태 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산·경남 선진지역을 방문, 청렴 정책 및 의회 운영 활성화와 관광 정책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30일에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69개 기초의회 중 두 곳만이 획득한 청렴도 1등급 달성 의회 부산 수영구의회를 방문, 의원간담회를 갖고 양 의회의 청렴 정책과 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둘째 날인 1일에는 경남 김해시의회를 방문해 양 의회 의원 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김해시의회의 청렴 정책과 종이 없는 회의 개최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예산 낭비 절감,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마지막 날인 2일에는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의 3.15해양누리공원을 연이어 방문, 관광 인프라와 운영 전략을 분석하며 북구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수집했다.

김상태 의장은 “청렴 정책과 의회 운영 우수사례를 북구에 접목하도록 해 북구의회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며 “우수 관광 시책도 적극 검토해 북구 관광 정책 반영에 노력하면서 지역 관광·유통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니어행복나눔센터 경로식당 배식 봉사활동

울산북구의회가 2분기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활동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6월 20일 북구 화봉로 81에 위치한 ‘시니어행복나눔센터’ 경로식당에서 급식 배식 지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상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식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차질 없이 점심 식사를 하도록 밥과 국, 반찬이 담긴 식판을 직접 전달하고, 부족한 반찬을 보충해 드리며 식사를 도왔다.

식사 후에는 어르신들의 식기를 퇴식구로 옮겨드리고, 식탁과 식당 바닥 청소를 하는 등 뒷정리도 함께 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봉사하고 술선수범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북구의회가 매 분기 진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이다.

김상태 의장은 “의회 구성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이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구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서약식



울산북구의회 의원들이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며 청렴서약서에 서명했다.

북구의회는 6월 23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의원과 직원, 의회 사무과 전 구성원의 참가 속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2025년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에 의거한 필수 교육이다.

청렴의식을 강화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김기용 강사가 공공기관 감사실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며 부패방지법 및 행동강령에 대해 강연했다.

특강에 이어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공정한 업무 태도를 약속하고, 의정활동을 청렴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으로 의원들이 직접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김상태 북구의회 의장은 “청렴한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의원, 직원 전체가 참가하는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사회의 관행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서약했다”고 밝혔다.

‘공정·투명성’ 강화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울산북구의회가 ‘청렴한 지방의회 만들기’를 목표로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구의회는 6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직후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구민들의 동참 속에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의원과 직원들은 이날 본회의를 참관한 ‘의회를사랑하는 사람들 북구지회’ 회원들과 함께 청렴을 강조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청렴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천동 구청장도 동참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부터! 지금부터! 끝까지’, ‘청렴의회 파이팅’ 등 다양한 청렴 구호를 외치며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북구의회는 앞서 지난 23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의회 다목적실에서 전체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 ‘2025년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특강에 이어서는 의정활동을 청렴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으로 청렴서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북구의회는 청렴의 생활화를 위해 매월 진행하는 의원 간담회에 앞서서도 ‘청렴 실천 동영상’을 시청하며 청렴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상태 북구의회 의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라며 “실천하는 청렴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주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결 의 안

발언의원 : 이선경 의원(대표발의) 외 4명
발언일시 : 제224회 임시회(2025. 2. 14.)
발언요지 : 북구 시내버스 노선 개선 촉구 결의안

북구 시내버스 노선 개선 촉구 결의안

지난해 12월 21일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울산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편된 버스노선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구 주민 특히, 농소2동, 3동 주민들을 만나기가 두렵다! 울산시가 버스노선을 개편한 이후 어디를 가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버스노선 개편의 최대 피해지역이 북구 지역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북구 주민의 주장인 북구청장은 울산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길 바란다. 북구 주민의 발을 묶지 말고 북구를 외로운 섬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여 북구를 떠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생겨나고 있다. 북구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

평범한 울산 시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버스가 불편하여 자가용을 탄다면 교통문제, 환경문제 그리고 버스 수요가 감소하여 버스회사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 버스노선 개선 촉구를 결의한다.

우리 북구 주민들은 평소에도 울산 중심가와 떨어져 있어 이동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개편으로 매곡, 달천, 중산, 이화, 강동지역에서 출발하여 출·퇴근을 하거나, 대형병원, 버스터미널, 기차역,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면 개편 전에도 1시간 정도 버스로 이동하였는데, 환승 시스템 도입으로 지금은 약 1시간 30분, 환승 시에는 약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 현실에 현재까지도 구청, 의회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또한, 장거리 노선 폐지로 버스 종점이 명촌 차고지로 바뀌면서, 태화강역, 삼산동으로 바로 가던 노선이 다시 환승을 해야 하고, 그것마저도 버스정보앱과 맞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혼란과 추위에 떨며 오지 않고 맞지 않는 버스를 기다려야 한다.

이것뿐만 아니다. 버스 운행 횟수를 감소하고, 버스노선을 감축, 폐지 그리고 폐선으로 배차 간격이 늘었고, 편리하게 이용했던 노선이 없어져 멀리까지 걸어가야 했고,

마을의 지선 버스는 첫차 시간을 늦추고, 막차 시간을 당겨 주민들의 삶을 구속하고 질을 떨어뜨렸다.

특히 당겨진 막차 버스로 인해 강동동 대안마을 주민들은 하던 일을 끝내지도 못하고 일찍 귀가하게 하고, 중학교, 고등학생, 강동 상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덧붙여, 북구의 관광이나 부산, 경주의 인근 지역과의 연계가 절실한 태화강역, 북울산역을 이용객들의 이용도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천혜의 절경을 가진 강동의 바닷가와 관광단지로 가는 노선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향후 북구의 관광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지난 1월 2일부터 매주 검토 과정을 거쳐, 일부 노선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북구 지역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을 염두해 두지 않아 버스 안은 콩나물시루가 되어 급하게 운행 횟수를 증대하거나, 예비 차를 투입하고 시간대를 앞당겨 운행하고 있다. 현재 울산시에서 19일까지 버스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여 수정,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는 버스 전면 개편 전에 울산시는 철저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 준비 그리고 현장 검증이 미흡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김두겸 시장은 울산 시민 여론을 무시하는 불통 행정을 멈추고 주민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

우리 북구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각 지역의 의원들이 민원을 접수받아 울산시에 건의하려고 준비 중이다. 북구 시민의 발이어야 할 시내버스가 오히려 북구를 고립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지역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울산 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북구청장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 및 버스 운영 회사와 울산시 버스택시과와 주민공청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한다.

하나, 울산시장은 우리 북구 주민들의 소중한 이동 수단인 버스노선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



건의안

발언의원 : 김상태 의원(대표발의) 외 8명

발언일시 : 제225회 임시회(2025. 4. 16.)

발언요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울산 북구의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법적·제도적 도입을 촉구한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의사나 의료법인, 약사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비(非)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과잉진료와 처방을 일삼아 의료 재정에 누수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등 합법적이고 건전해야 할 의료 환경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불법개설 기관으로 적발되어 환수가 결정된 기관은 총 1,717곳이며, 그 금액은 3조 3,763억 원에 달한다.

연 평균으로 살펴보면, 매년 114개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되어 2,250억원의 환수가 필요한 상황이나,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율은 지난 15년 동안 불과 6.9%, 환수액은 2,336억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는 고스란히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불법개설기관은 환자를 위한 진료의 질보다는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의료인력 배치에 소극적이며, 안전관리와 위생에 소홀하는 등 여러 위법한 의료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불법개설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4년 화재로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과 2018년 경남 밀양에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병원 모두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무장병원이었다.

이 외에도 불법개설기관은 불법적인 요양급여 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는데, 대전시에서도 의료소비자조합 이름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4년간 무려 18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

현재 경찰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평균 11개월 이상의 오랜 수사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불법개설기관의 폐업과 잠적, 재산 은닉 등 편법이 발생하고 있어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 환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조사와 민원신고 처리, 수사 의뢰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금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권이 없어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 의료 전문인력과 법률전문가 및 수사경력자 등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 조사에 필요한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할 경우, 수사 초기에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게 되어 수사 기간의 단축과 정확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도한 이윤추구로 환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의료인들의 진료권 박탈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하게 만드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조속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불법개설기관의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구정질문

질문의원 : 강진희 의원

질문일시 : 제224회 임시회(2025. 2. 28.)

질문요지 : 장애인 거주시설 상습 학대 사건에 대한 복구청의 대책에 관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상습 학대 사건에 대한 복구청의 대책에 관하여

북구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상습 학대 사건이 오늘로 120일, 만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해당 시설이 복구청에 사건을 보고한 것은 지난해 11월 6일이었으며,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 것은 올해 2월 4일입니다.

울산시는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울산 내 장애인 거주시설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전국 5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에 대해 3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의 관할 기관인 복구청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와 울산시의 특별 인권실태 점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지도·점검 권한을 가진 복구청의 구체적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신속한 대책 마련은 학대 피해자의 회복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장애인단체들에게도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Q1) 해당 시설이 복구청에 사건을 보고한 날은 지난해 11월 6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시설은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11월 28일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복구청장님께서 이 사건을 언제 처음 인지했으며 보고받은 이후 관련부서에 어떤 지침을 내리셨습니까?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시설을 방문하셨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A1) 해당 사건은 작년 11월 12일 최초 보고 받았으며, 사건이후 제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지는 않았으나,

사건 직전인 10월 21일 짜장면 나눔행사로 태연재 활원을 방문하여 이용장애인들을 만났고, 밝은 모습의 거주인들과 점심을 함께 한 기억이 있어 더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보고를 받으면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울산시 및 구에서 해당시설에 대하여 추가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임을 인지하고, 담당부서에 관련기관 및 시청과 협조하여 해당 시설을 방문 점검하는 등 서두르지 말고, 관련규정과 지침에 맞게 철저히 조사하여 가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와 다시는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Q2) 해당 시설에서는 2월 20일 거주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나, 지난 4년간의 인권교육은 강당에 모든 거주인을 모아 일괄적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교육은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강사로 참여했습니까?

A2)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교육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별도로 이용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2월 20일과 27일 2회기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강사는 울산장애인부모회 부설 울산장애인인권센터 전문강사가 참여하였으며, 그림카드와 영상자료를 활용한 인권침해내용과 신고 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육은 향후 추가로 3시간 더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증증장애인의 특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교육을 더 자주 실시하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복구장애인인권센터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여러방법을 고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Q3)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직무배제 및 미채용으로 인해 생활지도원 25명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남아 있는 생활지도원들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모든 직원을 학대 가해자로 낙

인찍는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울산시에서 3~4명의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북구청은 부족한 생활지도원 채용을 위해 어떤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A3) 현재 직무배제된 생활지도원으로 인한 돌봄공백은 매우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에 시설과 울산시, 북구청은 신규채용을 위해 인근 대학과 일자리/퇴직자 지원센터 등에 채용홍보를 협조 요청하였고, 2월 13일에는 사회복지사자격에 한하던 생활지도원 채용자격기준을 보육교사, 장애인재활상담사까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신규채용으로 총원이 어려운 만큼 북구자원봉사센터 협조요청을 통해 2월 14일부터 자원봉사단체를 시설에 배치하여 생활지도원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인력 추가배치를 위해 시설 및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친화서비스원과 소통하고 있으며 최근 채용에 응시한 생활지도원 3명에 대하여 채용 절차 등 확인 후 3월부터 임용할 예정입니다.

Q4) 인권지킴이단 회의자료를 살펴보니, 대부분의 인권지킴이단원이 장기간 연임하여 활동해 왔으며, 이번 학대사건을 계기로 3월 13일 임기 만료 후 모두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새로운 인권지킴이단이 본래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A4)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은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 등 실질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고 대규모 시설에 걸맞게 인원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북구청에서는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울산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북구장애인복지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와 북구청 담당 공무원 등 외부단원 5명을 시설 측에 추천하였으며, 해당시설 부모회에서 추천한 외부단원을 포함하여 최소 8인 이상으로 인권지킴이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은 분기별로는 정기회의를 실시하며 실질적인 인권상황 점검을 위하여 매월 인권점검반을 구성하고, 거주인당 점검 횟수를 늘려 인권보장을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5) 울산시와 북구청은 자립생활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자립생활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5)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전국에서 30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254명의 장애인이 자립했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자립생활주택 제공, 주거 이주 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는 사업지침을 바탕으로 태연재활원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립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울산시와도 협의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Q6) 해당 시설은 1988년 개원 이후 시설이 크게 노후화되었으며, 물리적 구조와 운영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져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현장 실사를 요청합니다. 최소한의 인권 보호를 위해 샤워 의자 제공 등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6) 태연재활원은 70억원의 국시비를 지원받는 시설이며 운영비와는 별도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여 환경개선을 요청할 것입니다. 생활관 방 크기가 협소하고 낮은 욕실 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으나, 목욕의자 등 편의기구 제공에 대해서는 시설운영비 사용 변경 또는 후원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Q7)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상습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북구청은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7) 북구청의 행정처분은 장애인복지법,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처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처분은 관련법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질문의원 : 박재완 의원

질문일시 : 제224회 임시회(2025. 2. 28.)

질문요지 : 북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통·복지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하여

북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통·복지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하여

우리 북구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부품 산업과 매곡, 이화, 중산일반산업단지 등이 밀집한 울산의 산업 핵심지역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 구조 고도화와 더불어 고령화에 대비한 지역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울산 중심지와의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과 외곽순환도로, KTX, 트램 등을 연계한 도로망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북구의회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14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북구 시내버스 노선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울산시청 버스택시과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의무가 있으며, 교통인프라 확충과 주민복지 향상은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울산시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울산시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외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울산 북구의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과 주민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구청의 대응 방안을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Q1) 최근, 울산시가 100명의 시민 모니터단을 모집하여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나, 뒤늦은 개선책에 대해 본 의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시의 시민 모니터단 운영과는 별개로, 구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울산시와의 협의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시내버스 개편 이후 우리 구에서는 시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대안을 검토하였으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강동동 대안마을과 달곡마을의 주민 의견이 반영된 버스 노선이 3월 1일부터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화지역 및 염포·

양정지역 주민건의 또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천곡, 매곡지역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3월부터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노선들에 대하여 월간 단위로 미세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며, 7월 이후에 2025년 상반기 승객의 이용데이터와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버스 노선 운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의 노선 조정 및 보완에 대응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접수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하게 협의함으로써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이용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2) KTX-이음 북울산역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구정질문 이후, 현재상황은 여전히 1년 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후 정부, 국회, 울산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진행된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2) 국토부는 올해 말 중앙선 신호시스템을 개편해 KTX-이음 열차운행시간을 단축하고, 차량을 추가 도입해 열차를 증편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가 최근 경부선 KTX-산천의 태화강역 정차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가고, KTX-산천이 태화강역에 정착하게 되면 인근인 우리 북울산역의 고속열차 운행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초 예정된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영,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울산공항 국제선 취항, 울산시 주도로 추진중인 창평 일원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예상되는 북울산역의 철도 이용 수요 증가는 KTX-이음의 추가 유치를 위한 당위성 확보는 물론, 타 역 대비 높은 경쟁력으로 KTX-이음 정착역 유치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아직, KTX-이음 추가 정차를 위한 중앙정부 및 코레일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계획은 없으나, 그 어느 지

자체보다 선제적이고 선도적으로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시와 긴밀한 유대관계 및 소통을 통하여 중앙정부 및 코레일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시 언제든지 제가 먼저 중앙정부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을 발벗고 찾아 다니며, 당위성을 설명하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Q3) 트램 1호선과 달리 우리 북구에 예정된 트램 2호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였고, 시가 재추진 의향을 밝힌 상황으로 재추진을 위한 구의 준비 상황과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3)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야음사거리에서 북울산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13.69km, 사업비 4,461억원의 규모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 구간 중 울산공항에서 울산경제진흥원 약 2.6km 구간은 동해남부선 이설로 생긴 폐선 부지를 활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노면 전철로 건설하는 것으로, 경제성을 높여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신청하였지만 결국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울산을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역철도 확충 사업이 많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B/C값이 0.97로 기준치인 1.0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이는 도시철도 1호선 B/C 0.85보다 높아 경제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하철 등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의 현실적인 상황, 특히 트램2호선을 이용할 현대자동차와 수많은 협력업체, SK에너지 등 수많은 기업들이 위치한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노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시는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한 만큼 보완 작업을 철저히 진행해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재신청할 예정으로 우리 구도 모든 행정역량을 총 동원하여 울산시와 함께 트램 2호선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에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Q4) 강동권 관광개발의 핵심인 농소-강동 간 도로 개설 공사의 원활한 추진(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정부, 국회, 울산시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4) 농소 강동간 도로개설사업은 2024년 5월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7월 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및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현재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농소 강동간 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4년 8월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보상추진에 따

른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울산광역시와 주민들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소 강동간 도로개설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비의 50%는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므로, 울산광역시와 협력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Q5) 우리구에 들어설 계획으로 추진 중인 울산 공공의료원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과 인프라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5) 울산시에서는 2021년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와 함께 예타면제를 추진하였으나, 아쉽게도 불발되고, 2022년부터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위해 다수의 현장조사와 협의 거쳐 진행하였으나, 2023년 5월에 최종,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조사에 탈락하더라도 울산의료원의 건립 필요성이 사라지는게 아니기에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시(市)에서는 지난해 7월, 울산의료원 설립 재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 하였으며, 지난해 10월부터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중이며 올 4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확정하고 정부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 예타면제 또는 예타 재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제1도매시장이 울주군 청량읍 울리로 이전 계획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불편한 북·동구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들의 이용 편의 개선 대책 등 도심 소비지형 시장 개설 필요성이 요구되어 시에서 건립구상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제2도매시장 건립예정지가 북구로 결정되었고, 2023년 10월에 우리 구에서는 접근성, 경제성, 미래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추천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반영한 후보지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기본계획 수립, 토지보상,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2031년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만 9천제곱미터, 예상 사업비는 810억원으로, 청과동, 수산동, 물류동 등 유통망 구축과 이 밖에도 청년창업 공간, 쇼핑몰, 프리마켓 운영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구축할 계획으로 지역 유통체계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면질문

질문의원 : 손옥선 의원

질문일시 : 2025. 4. 15.

질문요지 : 산불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및 대응체계 개선 관련

산불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및 대응체계 개선 관련

2025년 3월 경남 산청군을 시작으로 영남권 전역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166배, 서울 면적의 80%에 달하는 피해와 함께 27명의 사망자, 30명의 부상자, 3천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역대 최악의 재난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온, 건조, 강풍이 악조건이 중첩된 점을 원인으로 분석하나, 산불 진화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진화대원의 고령화, 헬기 부족, 소나무숲의 비율, 임도 부족 등 구조적 문제점들이 지적됩니다.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임도 정비와 추가 개설, 효율적인 산불 예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지능형 산불 방지 ICT 플랫폼'을, 강원도는 2월 AI 기반의 산불예방시스템에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불의 조기 감지와 신속한 진화를 위해서는 드론, AI 시스템 등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등산로 입구 CCTV 설치 등 실질적 대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 북구 관내 임도 관리 실태와 산불 방지 대책, 전문인력 확보 등 관련 부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Q1) 북구 임도 현황 및 산불 발생 시 실제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임도 점검 현황 및 임도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A1) 관내 임도는 총16개소로 약 48.12km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대산임도, 무룡임도 등 대부분의 주요 임도는 폭 4m 이상을 기준으로 조성되어 있고, 임도 특성상 경사지, 곡선부가 많아 대형 소방차(폭 2.5m이상) 진입이 어려운 곳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산불진화 특장차 진입이 가능하여 임도 주변 산불진화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 신설임도를 대상으로 하여 해빙기 점검(2.25.~ 3. 31.)을 완료하였으며, 4월 현재 전체 임도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 정기 점검(3. 1.~6. 30.) 및

집중호우 대비 점검(4. 1.~ 4. 30.)을 시행중이며, 향후 하반기 정기 점검(7. 1.~12. 31.)도 시행 예정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사면 유실 등 피해 발생 구역에 대하여 노면 복구 등 임도 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9년 대안동에 강동임도(1.6km), 2022년 신현동에 신전임도(1.4km)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산불진화 및 산림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임도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Q2) 북구의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드론, CCTV, AI 시스템 등의 감시 장비 도입 현황과 향후 확대 계획, 그리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A2)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 드론 1대, CCTV 4대, AI 답러닝 기반 ICT 플랫폼(市-구·군 총괄)이 구축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카메라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산불 감시(cctv) 사각 지역을 조사하여 산불취약지역 중심으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울주 산불 시 소방의 고성능 장비 투입으로 산불 진화에 큰 효과가 있었던 만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Q3) 구청장은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행계획을 매년 충실히 수립·시행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와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내화수종 식재 등의 산불 취약지 관리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A3) 매년 「산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산불 피해 최소화로 모두가 누리는 숲 조성'을 목표로 『2025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불취약지 산불 예방을 위해 최근 3년간('22~'24)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216ha, 조림사업 61ha를 추진 하였으며, '24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소각 산불 예방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파쇄면적 2.4ha/18개소)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42ha, 조림사업 5ha,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사업(파쇄면적 5.3ha/30개소), 명예산불감시원 운영(132명), 화목보일러 재처리 용기 보급사업 등을 추진 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불 취약지 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 피해지, 산불피해지역에 산림 복구와 경제성이 좋고,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마을, 공동주택 등에 산불소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중으로, 향후 산불취약지역에 대해 시민들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Q4)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구 산불감

시진화 인력은 산불감시원 2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1명으로 총 41명이며, 평균 연령이 64세에 달하는 고령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산불 진화대의 고령화 문제 해결과 전문성을 겸비한 진화대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산불 진화 활동을 위한 전문예방진화대의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A4) 울산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소방·산림 '공동산불 대응체계'로 최근 울주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이 주불 진화는 물론 잔불 제거까지 수행하며, 기존 이원화된 대응체계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로 울산소방대원의 산불 진압 전문성과 장비 운용 능력이 탁월해 현장 대응력에 큰 효과가 있었던 만큼 소방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 공고 시 나이별 가점 및 산림교육원·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 전문기관 산불 방지교육 이수자 등 가점 등을 고려하여 채용함으로써 산불 진화대 고령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면질문

질문의원 : 박정환 의원

질문일시 : 2025. 4. 15.

질문요지 : 복구재활용홍보관 향후 운영 계획 및 복구 탄소중립 정책에 관하여

복구재활용홍보관 향후 운영 계획 및 복구 탄소중립 정책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연암동 1049-4번지에 위치한 '복구재활용홍보관'은 2001년 개소했습니다. 당초 이 시설은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나, 장기간 리모델링 없이 운영되어 왔고 최근 지역 언론에서는 이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제기하였습니다.

2025년 현재, 해당 홍보관은 명칭만 '홍보관'으로 남아있을 뿐 실질적인 교육 및 홍보 기능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시설 노후화, 프로그램 부재, 그리고 체계적

인 운영 관리의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구재활용홍보관'의 향후 계획과 더불어 복구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Q1) 복구재활용홍보관의 리모델링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별도 자원재활용 관련 건물 건립 계획 포함) 있다면 예산 규모 및 추진 일정과 더

불어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북구재활용홍보관의 리모델링 계획이 현재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자원순환복합센터 등 3월 20일 국내 선진지 견학 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개관 당시에는 재활용선별장(직영)이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재활용 홍보 관련 이론 및 체험 학습까지 병행하여 주민들에게 자원재활용과 어린이의 환경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 코로나19 펜데믹, 통신매체의 발달, 그리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의 미흡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습니다.

Q1-1) 시설 리모델링 시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시설 건립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A1-1) 현재 재활용홍보관 부지는 국유지 철도용지와 구유지로서 트램과 울산숲사업으로 인하여 일부 땅 반환 가능성이 높은 위치이며, 2개의 효문, 양정지회소와 차고지로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지와 재활용홍보관 교육장소가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시설 개선사업비에 비해 교육활용도가 낮아 시설 리모델링에 부적합 합니다.

Q1-2)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1-2) 자원순환활동가를 모집하여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3개월간 수료 후 자원순환 교육 참여, 업사이클링 체험, 자원순환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이동형 자원순환 거점공간 운영 지원 등의 활동을 마을, 기관 등에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예정이며, 자원순환활동가를 모집하여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3개월간 수료 후 자원순환 교육 참여, 업사이클링 체험, 자원순환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이동형 자원순환 거점공간 운영 지원 등의 활동을 마을, 기관 등에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형버스를 '이동식 거점 수거센터'로 제작하여 재활용 자원을 수집하고 활용합니다. 투명페트병 압축기, 분리배출교육공간, 수거된 재활용품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계량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서 재활용 수거와 홍보, 교육의 장소 등을 자원순환을 한번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Q2) 만약, 리모델링(건립)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와 '북구재활용홍보관'의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A2) '북구재활용홍보관'의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말씀드린대로 현재 부지는 국유지 철도용지와 구유지로서 트램과 울산숲사업으로 인하여 일부 땅 반환 가능성이 높은 위치로, 부지와 면적이 매우 협소하므로 장소와 부지에 구애받지 않는 대형버스를 활용한 이동형 자원순환거점 수거센터를 제작하여 재활용 자원을 수집하고 투명페트병 압축기, 분리배출교육공간, 수거된 재활용품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계량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서 재활용 수거와 홍보, 교육의 장소로 대체 운영하겠습니다.

Q3) 울산광역시 북구가 제225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북구 관리권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0.4%에 해당하는 380천tCO₂eq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획에서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핵심 요소인 주민 교육 및 홍보 부문의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사업이 미흡하게 제시되어 있어, 주민 교육 및 홍보 관련 연도별 배정 예산과 단계별 실행 전략 등 상세한 정보를 요청드립니다.

A3) 우리구 2030년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등 부문별 1인 평균배출량과 통계청의 추계인구 통계자료를 토대로, 기준연도인 2018년 대비 7.7% 증가한 1,075천톤으로 전망되어, 이를 반영한 2018년 배출량 대비 30.4%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건물, 수송, 농축산, 자원순환, 흡수원 5개 부문에 47개 온실가스 감축 대책사업을 사업부서에서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은 4,792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우리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감축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이행주체들의 정책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정책 수용성은 지속적인 정책 내용의 효과적인 홍보와 이행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 인식수준을 높이고 기후친화적인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주민 교육·홍보사업을 그린리더 단체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니다. 또한, 매년 구단위 또는 동단위 축제·행사 시 탄소중립 홍보관 운영 뿐만 아니라, 녹색생활실천 교육,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동주택과 온실가스 감축협약을 체결하여 연말, 전기·수도·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우수한 아파트 6개소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정책 이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매년 공직자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사업예산으로 구비 28,600천원을 매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대한 계층별 구민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30년 우리구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사회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4) 북구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공식적인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구축되어 있다면 그 구성과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구축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A4) 우리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2023년 11월 전문가, 환경단체, 주민 등 15명으로 하는 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 기후위기 적응

대책, 계획들의 이행점검 등 계획과 시행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외 탄소중립 동향, 다양한 정책제언, 정보공유 등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과 이를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울산시 및 관내 기초지자체의 담당공무원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변화,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잘되고 있는 내용과 어려운 점을 공유하는 등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교육은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에서 울산시, 기초지자체, 교육청, 교사, 기업체, 지속가능협의회, 환경강사 및 환경단체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환경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서 환경교육 전문인력 강화 과정 등 학생, 시민대상의 다양한 탄소중립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와 협업하여 그린리더 강사 역량강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탄소중립 ESG 프로그램 연계 등으로 주민들의 기후·환경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민간기업·단체의 ESG경영을 활용한 도시숲 기업유치 등을 추진하여 우리구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면질문

질문의원 : 조문경 의원
 질문일시 : 2025. 4. 23.
 질문요지 : 북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준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북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준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 어르신들(약 90%)이 본인이 거주하던 지역과 가정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2024년 2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였으며, 2026년 3월 27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 시행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경우, 최근 '통합돌봄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건강관리부터 일상생활지원, 주거개선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상담으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 북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준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Q1) 울산 북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수립되었습니까? 수립되었다면, 기본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핵심 사업내용 및 연차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울산 북구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A1) 지역사회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공식적인 마스터플랜은 아직 미수립 상태이며, 향후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로, 기본계획서를 사업추진의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A1-1) 기본비전은 「북구 온(溫)품 돌봄 : 함께 만드는 따뜻한 울산 북구」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주거·일상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 시 단위 비전이 정해진다면 반영 하겠습니다.

A1-2) 현재 재활용홍보관 부지는 국유지 철도용지와 구 유지로서 트램과 울산숲사업으로 인하여 일부 땅 반환 가능성이 높은 위치이며, 2개의 효문, 양정 지회소와 차고지로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지와 재활용홍보관 교육장소가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시설 개선사업비에 비해 교육활용도가 낮아 시설 리모델링에 부적합 합니다.

A1-3) 2025년 시범사업 참여, 2026년 제도 정착, 2027년 고도화·확산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A1-4) 울산 북구는 쇠부리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따뜻한 돌봄모델을 지향하고,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계형 서비스 제공,

공단지역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서비스(만성질환, 재활 등) 강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Q2) 지난해 실시한 '울산 북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따르면 2043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북구 인구의 4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증가할 통합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다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 1) 통합돌봄 전담부서 신설 계획(조직 구조, 인력 규모, 설치 시기 등)
- 2) 보건·복지·의료·주거 등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 3)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

A1) 통합돌봄 전담부서 신설 계획(조직 구조, 인력 규모, 설치 시기 등)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 제정 및 제반 사업 준비를 위해 2025. 7. 1. 기준 통합돌봄추진 전담부서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 5. 1. 행정기구·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2025. 5. 22.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226회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통합돌봄 업무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과”를 신설할 예정으로, 통합돌봄과는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복지정책과의 “희망복지지원팀”과 가족정책과의 “아동친화드림팀”의 인력·업무를 이관·배치하여 총 14명으로 과를 구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교육청소년과 제외)의 개편안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7. 1. 개편안】

현행			개편안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복지정책(4)	노인복지(4)	여성정책(7)	복지정책(4)	통합희망복지(5)	노인복지(4)	여성정책(7)
통합조사관리(7)	노인시설(4)	아동보호(8)	통합조사관리(7)	통합돌봄(3)	노인시설(3)	아동보호(8)
희망복지지원(5)	장애인복지(5)	보육(6)	생활보장(4)	아동친화드림(5)	장애인복지(5)	보육(6)
	생활보장(4)	아동친화드림(5)				

※조직도 안에 기재된 팀별인원은 5급이상 미포함 / ■이동 ■신설 ■명칭변경

“통합돌봄팀”은 총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회복지6급”, “사회복지7급”, “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간호7급”으로 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숙련된 인력이 배치되도록, 또 의료업무의 원활한 연계추진을 위해 보건소 인력을 재배치하여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내실 있는 통합지원법 이행을 위해 지자체에 필요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중에 있으므로, 향후 업무의 확장 여부, 추가 인력 필요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2) 보건·복지·의료·주거 등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신설될 전담팀을 주축으로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8개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합안내창구로 지정하여 안내·접수 예정입니다.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심화평가를 통해 의료기관, 요양기관, 지역사회 지원 등으로 판정받아 지역사회 지원으로 분류된 대상자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통합지원회의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연계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주거 부서별로 서비스를 개요화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A3)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 관련 경력이 풍부한 내부 인력을 재배치 예정이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라 개발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기본교육, 사례관리 전문과정 등의 의무 이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돌봄 관련 실무자 워크숍 및 선진 사례 견학을 실시하여 실무능력과 현장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Q3) 현재 전국적으로 82개 지자체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울산 북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제정 계획과 관련하여 제정 추진 일정 및 주요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3) '25. 4. 15.자로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을 배포 받아 검토중이며, 전담팀 신설 후 실제 업무 방향과 대상자 수요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반영한 안을 마련하고 2차 정례회 때 조례안을 제출해 연내 제정 예정입니다.

Q4) 지역 내 돌봄 자원 및 인프라(의료기관, 복지시설, 주거환경 등)와의 연계방안과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현황 또는 방안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지역 내 돌봄 자원 및 인프라 연계 방안 (의료)보건소와 지역병원 등과 협력하여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재활서비스 등을 통합제공 (복지)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식사지원, 여가프로그램 연계 (주거)공공임대주택 관리기관 등과 협력하여 주거환경 개선, 긴급주거지원, 안전시설 설치 사업 추진 (민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등 민간 네트워크 활용 일상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활동 연계

A2)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일부 복지·보건 분야의 연계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통합돌봄 전담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미구축 상태입니다. 관련된 다양한 민간기관과 주민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에 관한 모니터링과 평가 측면의 간담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연계 방안과 상시적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은 아래 '통합지원협의체'의 역할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A3) '통합지원협의체'는 표준조례안 10조(통합지원협의체), 11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12조(협의체의 회의)에 따라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기관의 대표자,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년을 임기로 합니다. 연 2회 소집하여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서면질문

질문의원 : 박정환 의원

질문일시 : 2025. 6. 25.

질문요지 :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관련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관련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장기요양요원은 어르신 돌봄의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는 약 2,000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활동 중이나, 이들의 평균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고, 고용의 안정성 또한 낮아 그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북구는 지난해 7월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정책 실행이 뒤따르지 않고 있으며, 울산 동구와 울주군이 장기요양요원에게 매월 5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북구는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의 장기요양요원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Q1) 북구에서 관내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처우, 근로환경, 고용형태, 업무 만족도 등에 대한 정기적 또는 일회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실시 계획 여부와 그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A1) 현재까지 관내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처우, 근로환경, 고용형태, 업무 만족도 등에 관한 정기적 또는 일회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장기요양사업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별 토론회, 공청회, 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집된 결과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Q2)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 논의 또는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

진 바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등 실질적 예산 편성 계획과 세부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2)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2025년 당초 예산 편성 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수당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으로 최종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처우 개선 수당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 및 관련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북구 차원에서 인식 개선 또는 지위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이나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예를 들어, *서울 도봉구의 홍보 앞치마 제작과 같은 캠페인 사례와 같이 기존에 시행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사업 개요, 추진 주체, 예상 시기 등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A3) 현재 구 차원의 장기요양요원 인식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별도 홍보사업이나 교육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으나,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기요양요원의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노인복지시설 등과 협력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이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4)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차

원의 교육, 연수,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특히 심리방역, 치매 대응, 감염관리 등 특화 교육 제공 가능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A4) 현재 구 차원의 장기요양요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 교육, 연수, 전문성 제고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장기요양요원 재충전·건강증진지원사업 등을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지원센터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Q5) 북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획을 마련할 의지와 구체적 수립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

한 정책 추진 시, 북구 내 요양기관과의 정례적인 협의체나 의견 수렴 채널이 존재한다면 알려주십시오. 있다면 최근 협의 내역 및 주요 논의 사안을, 없다면 향후 협의체 구성을 통한 민관 협력 모델 수립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5) 현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나 종합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대하여 우리 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관내 요양기관과의 정례 협의체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채널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관내 장기요양기관 및 기관 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정환 의원
 발언일시 : 제224회 임시회(2025. 2. 14.)
 발언요지 :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청년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40세 미만 실업률은 5.2%로, 38만여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고용 한파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72.8%가 창업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 창업의 성공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북구 청년 창업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배 창업가의 멘토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1:1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기적인 멘토링 세션을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링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멘토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청년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전남 강진군에서는 리모델링한 빈집을 월 임대료 1만원에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유입과 창업을 가속화했습니다. 북구도 이와 같은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지원기관의 전문역량 강화도 중요합니다. 창업지원기관의 전문역량 강화는 청년 창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정부와 북구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가들에게 와 닿아 2025년에는 청년들의 도전적인 향해가 '성공'이라는 뜻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합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발언일시 : 제224회 임시회(2025. 2. 14.)
발언요지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학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학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북구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상습적인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이런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자는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4일 울산 북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다수의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CCTV 영상 12개 모두를 확인한 결과, 500여 건의 학대 의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20명의 생활지도원이 29명의 거주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장면이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2월 11일 ‘울산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한 달간 CCTV 자료에서 확인된 것일 뿐,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자행되고 은폐됐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지도점검 결과에서 인권지킴이단 인권상황 점검 시 외부 단원이 점검하여야 하나 연 1회이상 인권 상황 점검 미실시로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시나 북구청이 특이 사항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자체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구청은 지도점검이 형식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관에서 많은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조문경 의원
발언일시 : 제224회 임시회(2025. 2. 14.)
발언요지 : 통합돌봄이 그리는 새로운 노후지도

통합돌봄이 그리는 새로운 노후지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어르신 중 3명 중 2명 이상이 병원 등 시설에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지난해 2월「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북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철저히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담 조직 발족을 서둘러야 합니다. 65세 이상 북구 노인 인구는 2043년에는 86,89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가올 돌봄서비스의 수요 감당을 위해서 전담

조직을 마련해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조례 제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62곳에 달합니다.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만이 이러한 흐름에 비켜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연계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살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의 촘촘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임채오 의원
발언일시 : 제224회 임시회(2025. 2. 28.)
발언요지 : 아이들이 뛰노는 활력 복구, 산림레포츠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활력 복구, 산림레포츠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산림레포츠에 관심이 있으며, 신체를 활용한 체험 위주의 동적인 형태로 산림 여가활동의 폭이 넓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림레포츠와 관련하여 주민의 산림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 세 가지를 복구청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트리클라이밍 관련 산림레포츠 교육 및 체험활동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스포츠학회의 트리클라이밍 관련 연구에서는 “트리클라이밍이 아동·청소년의 운동기능의 발달뿐만 아니라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및 유치에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경북 울진군은 2023년 20여 차례의 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26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뒀습니다. 복구 관광진흥 활성화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를 이뤄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법령에서는 여러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 또한 산림레포츠 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동시에 산림레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 마련에도 선제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재완 의원
발언일시 : 제224회 임시회(2025. 2. 28.)
발언요지 : 울산 복구, 지역 축제를 활용한 도시 브랜딩 방안 제언

울산 복구, 지역 축제를 활용한 도시 브랜딩 방안 제언

오늘 저는 지역 축제를 활용한 도시 브랜딩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역 축제는 도시를 알리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작년 주목받은 축제로는 김천의 김밥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축제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 복구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성공적인 지역 축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도시와 축제의 연결성입니다. 몽돌 마라톤은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한 좋은 행사입니다. 몽돌 이미지를 부각

한다는 점에서 지역브랜드를 강화하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는 행사로 판단됩니다.

둘째, 축제 후속 관리입니다.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의 여운을 이어가면, 관광객들이 재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도시 브랜딩의 일관성입니다. 진주 유등축제는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빛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형성해 도시를 브랜딩했습니다.

축제 성공을 위해 도시와 밀접한 연결성, 후속 관리 등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복구만의 매력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자리 잡을수 있을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강진희 의원

발언일시 : 제225회 임시회(2025. 4. 16.)

발언요지 : 어르신 놀이터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합니다.

어르신 놀이터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공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부쩍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경우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어르신들의 운동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만성질환, 우울증, 사회적 고립 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 놀이터'는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주시 미나리공원은 노인 맞춤형 운동기구와 족욕장을 설치하고 전문 강사의 건강 프로그램을 통한 운영으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 복지 증진 조례」에 근거하여 어르신 놀이터 조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염포동의 경우처럼 놀이기구 철거가 필요한 공원부터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르신 놀이터를 설치해 놓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르신 놀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인력을 배치하고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 방식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경로당, 복지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을 점검하여 추가 또는 교체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김정희 의원

발언일시 : 제225회 임시회(2025. 4. 16.)

발언요지 : 선제적 산불 대응으로 북구 주민의 일상을 지켜주십시오.

선제적 산불 대응으로 북구 주민의 일상을 지켜주십시오.

지난달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은 역대 울산에서 발생한 산불 중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를 남기고 옛새 만에 완진되었습니다. 유례없이 빠르게 번진 이번 산불은 진화 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산불에 취약한 산림구조 등 현재 산불 대응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불 진화인력 고용체계를 정비해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적되는 진화대의 고령화, 비전문성 문제는 임시직이라는 한계와 열악한 처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둘째, 고령층 맞춤형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산불 발생 시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이렌 경보 등

고령화사회에 맞는 대응체계를 구청 차원에서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산림 구조를 재설계하고 추가 임도 확충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림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산림의 체질 개선에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임도 부족도 산불 대응의 큰 걸림돌입니다.

현재 북구에 16개 노선, 총 48km 길이의 임도가 있으나, 추가적으로 산불예방 등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임도 확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정환 의원

발언일시 : 제225회 임시회(2025. 4. 16.)

발언요지 : 지속가능한 복구, 내일을 위한 첫 걸음

지속가능한 복구, 내일을 위한 첫 걸음

북극곰이 등장했던 음료 광고를 기억하십니까?
북극은 지구 평균의 4배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어 북극곰은 머지 않아 자신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를 포함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ESG 우수 기관을 직접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경험을 토대로, 우리 복구가 나아가야 할 3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 도입으로 주민들의 환경 인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해남군 자원순환 복합센터의 시스템과 가치는 혁신적이었습니다.
지역 특화 포인트 지급, 공유물품 대여센터 등 자원순환 전 과정이 하나의 복합 공간에 녹아 있었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자원활동가 양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환경정책의 성공은 제도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정책이 있어도,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주체가 없다면 그 의미가 퇴색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동네 ESG센터'의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센터의 핵심은 지역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어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분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공된 원료는 친환경 제품으로 재탄생하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드린 세 가지 정책 방향은 우리 복구의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이선경 의원

질문일시 : 제225회 임시회(2025. 4. 16.)

질문요지 : 청년친화도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청년친화도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머물고, 일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취업의 불안정성, 높은 주거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중·장기적인 청년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 부족이나 주거비 부담만이 아닙니다. 지역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기회가 부족하고, 문화와 여가, 배움과 성장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청년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울산에서는 남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구는 현재 조례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환경 조성입니다.

청년문화생활바우처와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청년들이 사회의 핵심적인 주체로 자리잡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재완 의원

질문일시 : 제225회 임시회(2025. 4. 30.)

질문요지 : 문턱을 낮추는 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동행 행정

문턱을 낮추는 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동행 행정

행정은 우리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한 장 떼는 일부터 민원 해결에 이르기까지 행정은 주민들의 삶 곳곳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가장 멀고,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턱을 낮추는 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동행 행정”을 실현 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정 용어의 평이화를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많은 주민이 어려운 행정 용어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쉬운 설명으로 표기, 안내한다면 중·장년층도 행정을 신뢰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민원 소통 창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서울 도봉구는 'AI 챗봇 도봉이' 도입 이후 월 2,000건 이상의 민원을 자동 처리하며, 주민 만족도 85%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북구도 도입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디지털 민원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 제고와 주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현장 중심 행정을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귀담아 듣고, 현장의 실태를 직접 확인할 때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 도출됩니다.

더 나은 북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문턱을 낮추는 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동행 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조문경 의원

질문일시 : 제225회 임시회(2025. 4. 30.)

질문요지 : 강동동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꿈의 공간을...

강동동 청소년들에게 무한한 꿈의 공간을...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영국의 교육혁신가 '켄 로빈슨' 경이 한 말입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위해 어떤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는가?”

강동동을 생각하면 저는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강동동은 청소년들이 모일 '공간'의 크기조차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숨 막히는 학업 경쟁 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건전한 취미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공간조차 부족한 것이 우리 강동동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청소년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동·청소년 인구가 밀집된 강동의 산하동은 현재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문화시설 공간 부족으로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잃고 있고, 지역 상권은 공실률이 급증하며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비어있는 상가 건물을 청소년 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강동동의 청소년들,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회的大门을 열어주세요.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임채오 의원

질문일시 : 제226회 제1차 정례회(2025. 6. 10.)

질문요지 :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 절차 도입에 관하여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 절차 도입에 관하여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맡기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수탁기관의 선정부터 계약 체결까지는 관리위원회 심의, 의회의 동의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사후관리는 감사의 대상, 기준,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외부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 검증 절차'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 대상과 방법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는 회계감사를 시행하는 2개 사업을 제외하면, 대

부분 자체 검증에 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탁기관에 대한 교육 및 검증 비용 보조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외부 검증이 도입될 경우, 수탁기관은 외부 전문가가 검토할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증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검증 비용을 보조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산서 검증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조례 정비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재완 의원

질문일시 : 제226회 제1차 정례회(2025. 6. 10.)

질문요지 : 해양쓰레기 없는 강동, 우리 모두의 과제

해양쓰레기 없는 강동, 우리 모두의 과제

강동해변은 울산을 대표하는 명품 해안으로, 최근 캠핑·차박·낚시 등 해양레저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각종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보다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캠핑·차박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쓰레기 감축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용이 집중되는 지역은 사전 지정하고, 바닥 표시, 안내 표지, 경계 펜스 등으로 공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참여 유도형 인센티브 도입입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해양환경 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형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민·관·기업 협력체계의 구축입니다.

울산해수청, 해양환경공단, 지역기업, 시민단체와 연계해 정기적인 연안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ESG프로그램과 연계한 해양환경 교육 및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해양쓰레기 없는 복구, 우리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조문경 의원

질문일시 : 제226회 제1차 정례회(2025. 6. 25.)

질문요지 : 누구를 위한 해상풍력발전입니까?

누구를 위한 해상풍력발전입니까?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고 있는 일방적 주민 무시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종오 구청장 시절, SK건설과 한국전력기술이 강동 앞 바다에 196MW(메가와트)급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북구청에 제안했고, 북구청은 2014년 4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강동블루마시티푸르지오 1차 아파트가 2014년 5월 준공되었는데, 입주 단 한 달 전에 해상풍력발전사업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입니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최초 허가 이후 7년 동안 진행되던 이 사업은 지난 5월 29일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통해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에 그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동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이송하는 345kV(킬로볼트) 고압 송전선로가 동울산변전소까지 연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일본은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거쳐 적합한 곳을 선정해도 주민이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력 낭비와 사회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혐오시설 및 주민 반대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이선경 의원

질문일시 : 제226회 제1차 정례회(2025. 6. 25.)

질문요지 :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 만듭시다!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 만듭시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 유례없는 선거였습니다. 윤정부 3년과 6개월간의 비상사태 속에서 정치적 갈등은 극에 달했으며, 이념 전쟁, 세대 간 불신, 지역 감정 등 사회 전반에 갈등의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정권 교체를 넘어선 국민의 지난 시간에 대한 냉혹한 평가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 다음의 세가지 가치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정한 사회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청·장년층들은 “노력해도 기회가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는 더이상 구호로만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둘째, 통합과 치유의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하나로 묶기보다는, 때로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됩니다. 정치가 더 성장하며 앞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위기의 문턱,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 수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과감한 도전 정신과 변화와 혁신으로 담대하게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

발언의원 : 박재완 의원

질문일시 : 제226회 제1차 정례회(2025. 6. 25.)

질문요지 : 북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투명성 강화와 조직 혁신 촉구

북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투명성 강화와 조직 혁신 촉구

2022년 7월, 임채오 의원께서는 제20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은 인사 지양과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구 시설관리공단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했으나, 실제 상황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은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경고이며, 신뢰가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에 저는 구청장님과 임원추천위원들께 다음 세 가지 사항 요청드립니다.

첫째, 공단 이사장 인사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사장 임명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정전반에 관한 정보를 주

민에게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문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인사검증을 강화해 주십시오. 정치적 고려나 개인적 연고가 아닌,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역량과 책임감,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소명의식에 기반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이사장 후보자의 자격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구청장께서는 철저한 검증을 위해 북구의회에 인사 청문회 요청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선임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시설관리공단이 진정으로 주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복구의회 실시간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 |



○ 서비스 개요

-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의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주민들에게 복구의회 의사 진행과정을 생방송 및 녹화 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 서비스 내용

- 복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생방송
- 복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전 일정 녹화영상 영구 제공

○ 접속경로

복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kgu.ulsan.kr>) → 인터넷방송 메뉴 클릭 → 메인화면 ON-AIR 메뉴 클릭 → 해당일자 본회의 목록 클릭 → 영상화면 내 재생버튼 누르고 시청

※ 꼭 찬 화면 시청 방법

- PC : 영상화면 하단의 전체화면 마크 클릭
- 모바일 : 스마트폰 가로로 회전

의회 민원상담 안내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 소통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위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하여 주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 내용

민원인과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직접 상담 또는 현장방문
 각종 민원 불편,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각종 여론 수렴
 ※ 의원 부재 시에는 의회사무과(5층)에서 접수
 전화 : 241-8994 팩스 : 241-8979

농소2·농소3동	비례대표	농소1·송정동	강동·효문·양정·염포동	농소2·농소3동
				
의 장	부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복지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상태	조문경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의장실 : 241-8900 010-3854-1103	부의장실 : 241-8901 010-5232-4625	사무실 : 241-8902 010-9697-7139	사무실 : 241-8903 010-7760-6745	사무실 : 241-8904 010-9359-8572
농소1·송정동	농소2·농소3동	강동·효문·양정·염포동	강동·효문·양정·염포동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희	이선경	강진희	임채오	
사무실 : 241-8907 010-3469-1522	사무실 : 241-8906 010-8545-0266	사무실 : 241-8908 010-8610-4748	사무실 : 241-8905 010-4844-540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6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의회방청 및 견학안내



북구의회의 주인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북구의회는 주민 여러분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의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주민께서는 간단히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시면
회의 진행과정을 생생하게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의회사무과(☎241-89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렴한 의정, 신뢰 받는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http://council.bukgu.ulsan.kr>

전 화 052) 241-8971~8976

F A X 052) 241-8979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홈페이지 council.bukgu.ulsan.kr